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연대기를 재확인함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은 처음부터 조상들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과 또한 다윗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암묵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5장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 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바로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비옥한 길르앗 땅을 보고서 자신들은 이곳에 머무르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도운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는 그곳에 살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앗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아직도 앗수르 여러 지역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 땅에 거주하던 이 3지파의 패망은 열왕기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빼앗기고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열왕기하 10장32-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앗수르의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동시에 요단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살던 지파들이 멸망한 이유를 보면 앞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5:25)." 즉 요단 동쪽 지파들도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신들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왕하10:32)"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패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간음하듯'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을 간음하듯 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에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에 비유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신랑과 신부가 나누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분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14절 부터의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장17절에는 자녀가 된 것이 명목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효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전파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번째는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함 같이 한결 같은 사랑과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분의 마음을 다해 주시고 그 분의 뜻을 다해 주시며 그 분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의 용량을 측정한다면 그것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분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 그 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속이며 다른

남편을 따라가는 것처럼 "간음하듯"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간음하듯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 내가 간음하듯 섬기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과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